

주한 네팔 대사관 일행 지스트 방문

- 주요 연구소 견학 및 자국 출신 재학생 및 연구원 교류 논의
- 대사관측과 협력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기여



▲ '주한 네팔 대사관 방문단' 단체사진

람 싱 타파(Ram Singh Thapa) 주한 네팔 대리대사를 비롯한 주한 네팔 대사관 방문단이 8일(금)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를 방문했다.

주한 네팔 대리대사(Ram Singh Thapa), 서기관(Sangam Kharee), 본교 네팔인 8명(석사 3명, 박사 3명, 연구원 2명), 입학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A동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 주한 네팔 대사관 일행은 네팔 재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IBS 극초단광양자빔 특수 연구동을 방문하여 극초단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탐방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3월부터 주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스트의 우수한 교육·연구환경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네팔 대사관측의 답방 형식으로 성사됐다.

입학팀은 정부초청장학생(GKS) 등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대사관측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네팔 내 우수대학교 및 한국 국내 유학생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 형성 ▲국내·외 연락망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기대하고 있다.

입학팀은 국제유학박람회 참여, 주한 대사관 입학설명회 개최, 홍보대사 운영, SNS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활동의 결과, 최근 외국인 지원자 및 등록자 수 증가와 다양한 국적의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근영 입학학생처장은 “지스트는 외국인 대상 대학원 입시전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학홍보를 통해 학사과정에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지스트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연구를 수행하여 양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